

영보이 2017서울시 사회복지직 국어(B책형) 해설

1. 단어의 뜻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리끼: 밤에 자다가 마시기 위하여 잠자리의 머리맡에 준비하여 두는 물
- ② 무람없다: 생김새가 볼품없고 세련되지 못하다.
- ③ 국으로: 제 생긴 그대로
- ④ 짜장: 과연 정말로

(문제1) 정답 및 해설 (2017서울시 사회복지직 B책형 문제1)

- ① 자리끼: 밤에 자다가 마시기 위하여 잠자리의 머리맡에 준비하여 두는 물 (O) <명사>
 예1) 방 안에는 모기장이 쳐져 있었고 머리맡에는 아내가 늘 준비해 두던 자리끼도 없었다. <김원일, 노을>
 예2) 어찌 일찍 일어나서 자리끼도 내오고 요강도 치우지 못하느냐. <한설야, 탑>
 ☺영보이 암기tip) 단어를 외울 때는 뜻을 그대로 넣어 숙지하는 것이 좋다.
 ☺영보이는 파리지옥처럼 입을 벌리고 자는 버릇이 있어 목이 자주 마른다. 밤에 자다가 물을 마시기 위해 머리맡에 자리끼를 놓아두었다. 꿀떡꿀떡 맛 좋군. 자리끼야 목마를 때 항상 내 머리맡을 지켜주렴. ^^
- ② 무람없다: 생김새가 볼품없고 세련되지 못하다. (X)
 → 무람없다: (형용사) 예의를 지키지 않으며 삼가고 조심하는 것이 없다.
 예)제 행동이 다소 버릇없고 무람없더라도 용서하십시오.
 ☺영보이 암기tip) 1남5녀 중 막내 남동생 무람이는 어머니가 치킨을 시키면 닭다리를 모두 차지하려해 누나들에게 예의를 지키지 않아 무람없다.
- ③ 국으로: 제 생긴 그대로 (O)
 ◆ 국으로: 「부사」 제 생긴 그대로. 또는 자기 주제에 맞게
 예1)국으로 가만히 있어라.
 예2)국으로 굶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라.
 ☺영보이 암기tip) 사드배치에 분노하는 중국으로 여행가서 봉변을 당할 수 있으니 아주 가만히 생긴 그대로 국으로 눈만 뜨고 다녀라.
- ④ 짜장: 과연 정말로 (O)
 ◆ 짜장: 「부사」 과연 정말로
 예)그는 짜장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
 ☺영보이 암기tip) 과연 정말로 짜장은 맛있다.

(문제1) 정답: ②

2. 짝지어진 두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이 모두 보조 용언인 것은?

- ① 이 책도 한번 읽어 보거라. / 밖의 날씨가 매우 더운가 보다.
- ② 야구공으로 유리를 깨 먹었다. / 여름철에는 음식물을 꼭 끓여 먹자.
- ③ 이것 좀 너희 아버지께 가져다 드리렴. / 나는 주말마다 어머니 일을 거들어 드린다.
- ④ 이것 말고 저것을 주시오. / 게으름을 피우던 그가 시험에 떨어지고 말았다.

(문제2) 정답 및 해설 (2017서울시 사회복지직 B책형 문제2)

① 이 책도 한번 읽어 보거라. (O/보조용언) / 밖의 날씨가 매우 더운가 보다. (O/보조용언)

◆ 읽어 보거라.

(본용언) (보조 용언이자 보조 동사) - 이 문장에서 본용언이 동사이므로 보조용언도 동사이다, ↓

↓ ↓
read see(x)

◆ ‘읽어 보거라.’에서 ‘읽어’는 ‘read’의 의미가 있으므로 본용언(동사)이지만 ‘보거라’는 ‘see’의 의미가 없으므로 보조 용언이다. 다시 말해서 ‘책을 읽어 눈으로 보거라.’란 말은 어색하므로 ‘보거라’는 ‘어떤 행동을 시험 삼아 함을 나타내는 말’의 보조 동사이다.

◆ 보조 동사 ‘보다’의 예

◆ 먹어 보다 / 말을 들어 보다

◆ 입어 보다 / 꼼꼼히 따져 보다

● 더운가 보다.

(본용언) (보조 용언이자 보조형용사) - 이 문장에서 본용언이 형용사이므로 보조용언도 형용사이다,

↓ ↓
hot see(x)

● ‘더운가 보다’에서 ‘더운가’는 ‘hot’의 의미가 있으므로 본용언(형용사)이지만 ‘보다’는 ‘see’의 의미가 없으므로 보조 용언이다. 다시 말해서 ‘더운가 눈으로 보다’란 말은 어색하므로 ‘보다’는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를 추측하거나 어렵듯이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의 보조형용사이다.

● 보조형용사 ‘보다’의 예

● 식구들이 모두 집에 돌아왔나 보다.

● 열차가 도착했나 보다.

● 그 사람이 인기가 많은가 보다.

② 야구공으로 유리를 깨 먹었다. (본용언) / 여름철에는 음식물을 꼭 끓여 먹자.(본용언)

◆ 깨 먹었다.

(본용언) (보조 용언이자 보조동사) - 이 문장에서 본용언이 동사이므로 보조용언도 동사이다,

↓ ↓
break eat(x)

◆ ‘깨’는 동사 ‘깨다’로 이 문장에서 본용언이다. ‘깨다’는 ‘단단한 물체를 쳐서 조

각 이 나게 하다.'라는 'break'의 의미가 있으므로 본용언이다. 하지만 '먹었다'는 'eat'의 의미가 없으므로 보조 용언이다. 다시 말해서 '유리를 깨서 먹었다.'는 말은 어색하므로 이 문장에서 '먹었다'는 보조 용언이다.

- 끓여 먹자.

(본용언) (본용언)

↓

boil

↓

eat

● '끓여'는 'boil'의 의미가 있으므로 본용언이고 '먹자'도 'eat'의 의미가 있으므로 본용언이다.

cf. 시험에 잘 나오는 속어: boil down to(결국 ~이 되다. / ~으로 요약하다.)

③ 이것 좀 너희 아버지께 가져다 드리렴. / 나는 주말마다 어머니 일을 거들어 드린다.

- ◆ 가져다 드리렴.

(본용언) (본용언) - 둘 다 본용언이자 본동사

↓

bring

↓

give

◆ '가져다'는 'bring'의 의미가 있으므로 본용언이다. 또한 '드리렴'도 'give'의 의미가 있으므로 본용언이다.

- 거들어 드린다.

(본용언) (보조용언이자 보조동사) - 본용언이 동사이므로 보조용언도 동사이다,

↓

help

↓

give(x)

● '거들어'는 'help'의 의미가 있어 본용언이지만 '드린다'는 'give'의 의미가 아니라 '주다'의 높임말로 쓰인 보조동사이다.

- 보조동사 '드리다'의 예

- 어머니께 소식을 알려 드리다.

- 할머니께 편지를 읽어 드리다.

- 어머니의 어깨를 주물러 드리다.

④ 이것 말고 저것을 주시오. / 게으름을 피우던 그가 시험에 떨어지고 말았다.

- ◆ 주시오: 본동사 - '주시오'는 'give'의 의미가 있으므로 본동사이다.

- 떨어지고 말았다.

(본동사) (보조동사) - 본동사가 동사이므로 보조동사도 동사이다,

↓

fall

↓

stop(x)

● '떨어지고'는 'fall'의 의미가 있으므로 본동사이지만 '말았다'는 'stop'의 의미가 없으므로 보조동사이다. 다시 말해서 이 문장에서 '말다'는 '일을 이루어 낸 데 대하여 긍정적인 생각 또는 부정적이고 아쉬운 느낌이 있음'을 나타내는 보조동사이다.

- 보조동사 '말다'의 예

- 새로운 기계 발명에 성공하고야 말겠다.

- 그와 나는 마주 보고 웃고 말았다.

- 기차가 떠나 버리고야 말았다.

(문제2) 정답: ①

3. <보기>의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 ㉠ 낮익은, 철수의 동생이 우리 집에 찾아왔다.
- ㉡ 꺼진 불도 다시 보자
- ㉢ 휴가를 낸 김에 며칠 꼭 쉬고 온다?
- ㉣ 나는 일이 다 틀렸나 보군. 하고 생각하였다.

- ① ㉠ : 침표를 보니 관형어 ‘낮익은’은 ‘철수’와 ‘동생’을 동시에 수식함을 알 수 있다.
- ② ㉡ : 마침표가 없는 것을 보니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제목이나 표어임을 알 수 있다.
- ③ ㉢ : 물음표를 보니 의문형 종결 어미로 끝나지 않았더라도 의문을 나타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 : 작은따옴표를 보니 ‘일이 다 틀렸나 보군.’은 마음속으로 한 말이 인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문제3) 정답 및 해설 (2017서울시 사회복지직 B책형 문제3)

- ① ㉠ : 침표를 보니 관형어 ‘낮익은’은 ‘철수’와 ‘동생’을 동시에 수식함을 알 수 있다.(X)

◆ 침표(.): 같은 자격의 어구를 연결할 때 쓰거나, 짝을 지어 구별할 때, 이웃하는 수를 개략적으로 나타낼 때, 열거의 순서를 나타낼 때, 문장의 연결 관계를 분명히 하고자 할 때, 되풀이되는 말을 피하기 위해 일정 부분을 줄여서 열거할 때, 부르거나 대답하는 말 뒤에, 한 문장 안에서 ‘곧’ 따위의 어구로 다시 설명할 때, 한 문장에 같은 의미의 어구가 반복될 때, 도치된 어구 사이에, **바로 다음 말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지 않음을 나타낼 때**, 문장 중간에 끼어든 어구의 앞뒤에, 특별한 효과를 위해 끊어 읽는 곳을 나타낼 때, 짧게 더듬는 말을 표시할 때 쓴다. ≡ 반점·콤마

◆ 침표는 ‘**바로 다음 말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지 않음을 나타낼 때**’사용한다.

◆ 이 문장에서 침표를 쓰지 않으면 의미가 중의적이다. 철수가 낮익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철수의 동생이 낮익다는 의미인지 모호하여 침표를 써서 의미를 명확하게 한 것이다.

◆ 따라서 ‘낮익은’은 ‘철수’가 아니라 ‘철수의 동생’을 수식하는 것이다.

- ② ㉡ : 마침표가 없는 것을 보니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제목이나 표어임을 알 수 있다.
(O)

◆ 일반적으로 제목이나 표어에는 마침표를 사용하지 않는다.

◆ 마침표(.): 서술·명령·청유 따위를 나타내는 문장의 끝에 쓰거나, 아라비아 숫자로 특정한 의미가 있는 날을 표시할 때, 장, 절, 항 등을 표시하는 문자나 숫자 다음에 쓴다.

- ③ ㉢ : 물음표를 보니 의문형 종결 어미로 끝나지 않았더라도 의문을 나타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O)

◆ 물음표(?): 의문문이나 의문을 나타내는 어구의 끝에 쓰거나, 특정한 어구의 내용에 대하여 의심, 빈정거림을 표시할 때, 적절한 말을 쓰기 어려울 때, 모르거나 불확실한 내용임을 나타낼 때에 쓴다. ≡ 문표(問標)·의문부·의문 부호·의문표

◆ 의문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느냐’, ‘-는가’ 따위가 쓰이지 않았더라도 물음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④ ㉠ : 작은따옴표를 보니 ‘일이 다 틀렸나 보군.’은 마음속으로 한 말이 인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O)

◆ 작은따옴표(“”): 인용한 말 안에 있는 인용한 말을 나타낼 때 쓰거나 마음속으로 한 말을 적을 때 쓴다. ≡ 내인용부

(문제3) 정답: ①

4. 밑줄 친 용언의 활용형의 표기가 옳은 것은?

- ①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가까왔다.
- ② 일이 다 잘되서 다행이다.
- ③ 입구에 붉은 글씨가 쓰여 있다.
- ④ 생각컨대 조금 더 기다려 보자.

(문제4) 정답 및 해설 (2017서울시 사회복지직 B책형 문제4)

①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가까왔다. (X) → 가까왔다

◆ 가깝다: (형용사) - 활용: 가까워, 가까우니

◆ ‘가깝다’는 ‘ㄴ불규칙’용언으로 ‘가까워, 가까우니’ 등으로 활용한다.

● 예외: ‘ㄴ불규칙’용언 중 ‘돕다’와 ‘곱다’는 ‘와’와 결합한다.

● 불우이웃을 돕다. - 도와, 도우니, 돕는

● 살결이 곱다. - 고와, 고우니

☺영보이 암기tip)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워낙 가까워 시간이 절약된다.

< 워낙 - 가까워 >

② 일이 다 잘되서 다행이다. (X) → 잘되어서 (O) / 잘돼서 (O)

◆ ‘잘되어서’의 준말은 ‘잘돼서’가 올바르다.

☺영보이 암기tip) 돼지 농장이 잘돼서 삼겹살을 싣껏 먹을 수 있다. 꿀꿀~.

< 돼지 농장 - 잘돼서 >

③ 입구에 붉은 글씨가 쓰여 있다. (O) = 쓰여 (O)

◆ ‘쓰다’는 ‘쓰이다’의 준말로 ‘쓰여’, ‘쓰니’ 등으로 활용한다.

◆ 또한 ‘쓰여’와 ‘쓰여’ 둘 다 모두 올바른 표현이다.

④ 생각컨대 조금 더 기다려 보자. (X) → 생각하건대 (O) 생각건대 (O)

◆ 안울림소리(‘생각’의 ‘ㄱ’) 뒤에는 거센소리가 오지 않는다. 따라서 ‘생각건대’가 옳다.

☺영보이 암기tip) 생각건대, 지하철 노선도에서 ‘건대입구’ 옆에 ‘어린이대공원’이 있었던 것 같다.

(문제4) 정답: ③

5. 다음 중 밑줄 친 부분과 가장 잘 어울리는 사자성어는?

사면(四面)으로 두른 것은 토끼 잡는 그물이고, 토끼 은신 수풀 속 쫓는 것은 초동(樵童)이라. 그대 신세 생각하면 적벽강에 전패(全敗)하던 조맹덕의 정신이라. 작은 눈 부릅뜨고 짧은 꿈지 뒤에 끼고 절벽상에 정신없이 달아날 제…….

- ① 小隙沈舟
- ② 魂飛魄散
- ③ 亡羊補牢
- ④ 干名犯義

(문제5) 정답 및 해설 (2017서울시 사회복지직 B책형 문제5)

◆ 위 글은 ‘수궁가’로 토끼가 잡힐까봐 정신없이 도망가는 상황이므로 정답은 ‘魂飛魄散(혼비백산)’이 적절하다.

◆ 수궁가(水宮歌): 판소리 열두 마당의 하나. 고대 소설 <토끼전>을 바탕으로 한 판소리로, 토끼와 자라의 행동을 통하여 인간을 풍자한 내용이다. ≡ 토끼 타령

① 小隙沈舟(소극침주): 小(작을 소) 隙(틈 극) 沈(잠길 침) 舟(배 주)

◆ 의미: 조그만 틈으로 물이 새어 들어 배가 가라앉는다는 뜻으로, 작은 일을 게을리하면 큰 재앙이 닥치게 됨을 이르는 말.

② 魂飛魄散(혼비백산) (○): 魂(넋 혼) 飛(날 비) 魄(넋 백) 散(흩을 산)

◆ 의미: 혼백이 어지러이 흩어진다는 뜻으로, 몹시 놀라 넋을 잃음을 이르는 말.

◆ 유의어

◆ 魂不附身(혼불부신)

◆ 魂不附體(혼불부체)

③ 亡羊補牢(망양보뢰): 亡(망할 망) 羊(양 양) 補(기울 보/도울 보) 牢(우리 뉘(뇌))

◆ 속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뜻이다.

a)의미: 양을 잃고 우리를 고친다는 뜻으로, 이미 어떤 일을 실패한 뒤에 뉘우쳐도 아무 소용이 없음을 이르는 말.

***유의어**

1) 渴而穿井(갈이천정): 渴(목마를 갈), 而 (말 이을 이) 穿(뚫을 천) 井(우물 정)

a)의미: 목이 말라야 그때서야 샘을 판다는 뜻으로, 미리 준비(準備)하고 있지 않다가 어떠한 지나가버린 뒤에는 아무리 서둘러 보아도 전혀 소용(所用)이 없다는 말.

2) 晚時之歎(만시지탄): 晚(늦을 만) 時(때 시) 之(갈지) 歎(탄식할 탄)

a)의미: 시기에 늦어 기회를 놓쳤음을 안타까워하는 탄식.

3) 死後藥方文(사후약방문): 死(죽을 사) 後(뒤 후) 藥(약 약) 方(모 방/본뜰 방) 文(글월 문)

a)의미: 사람이 죽은 뒤에야 약방문(藥方文)을 쓴다는 의미로 이미 때가 지난 후에 대책(對策)을 세운다거나 후회(後悔)를 하여도 전혀 소용이 없다는 말.

ㄱ) 약방문(藥方文): 약을 짓기 위해 약의 이름과 양을 쓴 종이.

4)死後淸心丸(사후청심환): 死(죽을 사) 後(뒤 후) 淸(맑을 청) 心(마음 심) 丸(둥글 환).

a)의미: '죽은 뒤의 약'이라는 의미로, 때를 놓친 것을 말함.

5)失馬治廐(실마치구): 失(잃을 실) 馬(말 마) 治(다스릴 치) 廐(마구간 구)

a)의미: '말 잃은 뒤에 외양간 고친다'는 뜻으로, 낭패를 본 후 대책을 세운다는 말.

6)十日之菊(십일지국): 十(열 십) 日(날 일) 之(갈지) 菊(국화 국)

a)의미: '한창때인 9월 9일이 지난 9월 10일의 국화'라는 뜻으로, 이미 때가 늦은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반대 뜻을 가진 한자어(상대어)

1)居安思危(거안사위): 居(살 거) 安(편안 안) 思(생각 사) 危(위태할 위)

a)의미: 편안할 때라도 위태로움을 생각하라는 뜻.

2)曲突徙薪(곡돌사신): 曲(굽을 곡) 突(갑자기 돌) 徙(옮길 사) 薪(땃 신)

a)의미: 굴뚝을 구불구불하게 만들고 아궁이 주위에 있는 나무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뜻으로, 위험을 미리 대비하라는 의미.

3)有備無患(유비무환): 有(있을 유) 備(갖출 비) 無(없을 무) 患(근심 환)

a)의미: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음.

④ 干名犯義(간명범의): 干(방패 간) 名(이름 명) 犯(범할 범) 義(옳을 의)

◆ 의미: 명분을 거스르고 의리를 어기는 행위.

(문제5) 정답: ②

6. 다음 자료가 간행된 시기에 나타난 국어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太子 | 道理 일우샤 조개 慈悲호라 하시느니 「석보상절」

① ‘니’와 ‘규’가 단모음화된 시기이다.

② 합용 병서와 각자 병서가 쓰였던 시기이다.

③ 주격 조사 가가 나타나지 않았던 시기이다.

④ 모음 조화가 현대 국어보다 뚜렷하게 나타났던 시기이다.

(문제6) 정답 및 해설 (2017서울시 사회복지직 B책형 문제6)

◆ **석보상절**(釋譜詳節): **조선 세종** 28년(1446)에 수양 대군이 세종의 명에 따라 소헌 왕후 심씨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쓴 책으로 세종 29년에서 31년 사이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나라 도선의 <석가씨보(釋迦氏譜)>, 양나라 승우(僧祐)의 <석가보(釋迦譜)>, 법화경, 지장경(地藏經), 아미타경, 약사경 따위에서 뽑아 한글로 풀이한 석가모니의 일대기로, 조선 초기 국어 국문학의 귀중한 자료이다. 7책. 보물 제523호.

① ‘ㄴㅛ’와 ‘ㄴㅜ’가 단모음화된 시기이다. (X) → ‘ㅍ’, ‘꺠’, ‘ㄴㅛ’, ‘ㄴㅜ’는 세종당시(15세기)에는 이중모음이었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단모음이 되었다.

◆ 단모음: 소리를 내는 도중에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지 않는 모음. 국어의 단모음은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ㅝ’, ‘ㅡ’, ‘ㅣ’이며, 이 중 ‘ㄴㅛ’, ‘ㄴㅜ’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할 수도 있다. ≡ 훌훌소리.

◆ 15세기 국어의 모음 ‘ㅍ’, ‘꺠’, ‘ㄴㅛ’, ‘ㄴㅜ’ - 이중모음

● 현대 국어의 모음 ‘ㅍ’, ‘꺠’, ‘ㄴㅛ’, ‘ㄴㅜ’ - 단모음

② 합용 병서와 각자 병서가 쓰였던 시기이다. (O)

◆ 첫소리를 어울워 뽕디면 굴박 쓰라 - 병서법(나란히쓰기)

◆ 병서: 훈민정음에서, 초성자 두 글자 또는 세 글자를 가로로 나란히 붙여 쓰는 일.

◆ 각자 병서: ‘ㄱㅍ’, ‘ㅌㅍ’

◆ 합용 병서: ‘꺠ㅍ’, ‘꺠ㅌ’

③ 주격 조사 ‘가’가 나타나지 않았던 시기이다. (O)

◆ 15세기의 주격 조사는 ‘이’가 많이 쓰임.

● 17세기의 주격 조사는 ‘가’가 많이 쓰임.

④ 모음조화가 현대 국어보다 뚜렷하게 나타났던 시기이다. (O)

◆ 모음조화 현상은 현대 국어보다 중세국어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문제6) 정답: ①

7. 밑줄 친 표현의 뜻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

① 그 사람은 입이 발아서 입맛 맞추기가 어렵다.

- 음식을 심하게 가리거나 적게 먹다.

② 입이 거친 그를 흰 눈으로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 업신여기거나 못마땅하게 여기다.

③ 이번 일은 네가 허방 짚은 격이다.

- 잘못 알거나 잘못 예산하여 실패하다.

④ 새참 동안 땀을 들인 후 다시 일을 시작했다.

- 땀을 일부러 많이 내서 피곤을 풀다.

(문제7) 정답 및 해설 (2017서울시 사회복지직 B책형 문제7)

① 그 사람은 입이 발아서 입맛 맞추기가 어렵다. - 음식을 심하게 가리거나 적게 먹다.

◆ 입이 발다/짹다: 음식을 심하게 가리거나 적게 먹다.

◆ 저 아이가 저렇게 마른 것은 다 입이 발기 때문이지.

◆ 남편은 입이 짹아 입맛을 맞추기가 어렵다.

◆ 그녀는 입이 짹아 음식을 조금 먹다가 그만둔다.

② 입이 거친 그를 흰 눈으로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업신여기거나 못마땅하게 여기다.

◆ 흰 눈으로 보다: 업신여기거나 못마땅하게 여기다.

◆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그였기에 주변 사람 모두 그를 흰 눈으로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③ 이번 일은 내가 허방 짚은 격이다. - 잘못 알거나 잘못 예산하여 실패하다.

◆ 허방(을)짚다

1)발을 잘못 디디어 허방에 빠지다. < 허방을 짚은 사내의 손은 숫제 허공을 더듬듯 하더니, 속득이의 가슴께를 뒤에서 얼른 껴안았다. - 김정한, 뒷기미 나루 - >

2)잘못 알거나 잘못 예산하여 실패하다. < 캡을 쓴 사내는 이미 그곳에는 보이지 않았다. 허방을 짚은 격이 된 도현은 갑자기 기세가 폭 꺾이었다. - 손창섭, 낙서족 - >

◆ 허방: 땅바닥이 움푹 패어 빠지기 쉬운 구덩이

● 허방다리: 함정(陷穽)

④ 새참 동안 땀을 들인 후 다시 일을 시작했다.-땀을 일부러 많이 내서 피곤을 풀다. (X)

◆ 땀을 들이다

1)몸을 시원하게 하여 땀을 없애다. < 나무 그늘에서 땀을 들이다. >

2)잠시 휴식하다. < 새참 동안 땀을 들이다 / 바위 그늘에 앉아 잠시 땀을 들인 갑례는 다시 자루를 이고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 하근찬, 야호- >

(문제7) 정답: ④

8. 다음 예문 중에서 관형절의 성격이 다른 하나는?

① 비가 오는 소리가 들린다.

② 철수는 새로 맞춘 양복을 입었다.

③ 나는 길에서 주운 지갑을 역 앞 우체통에 넣었다.

④ 윤규가 지하철에서 만났던 사람은 의사이다.

(문제8) 정답 및 해설 (2017서울시 사회복지직 B책형 문제8)

① 비가 오는 소리가 들린다. - 동격관형절

◆ 동격관형절은 관형절 속에서 어떠한 성분이 생략되지 않은 것은 문장을 의미한다.

◆ ‘비가 오는’에서 관형절 속에서 생략된 성분이 없으므로 ‘비가 오는 소리가 들린다.’는 동격관형절이다.

② 철수는 새로 맞춘 양복을 입었다. - 관계관형절

◆ 관계관형절: 관계관형절은 관형절 속에서 어떠한 성분이 생략되어 있는 문장을 말한다.

◆ ‘철수가 () 새로 맞추다’에서 ‘양복을’이라는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어 관계관형절이다.

③ 나는 길에서 주운 지갑을 역 앞 우체통에 넣었다. - **관계**관형절

◆ ‘나는 길에서 ()을 주웠다.’에서 ‘지갑을’이라는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다.

④ 윤규가 지하철에서 만났던 사람은 의사이다. - **관계**관형절

◆ ‘윤규가 지하철에서 ()을 만났다.’에서 ‘사람을’이라는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다.

(문제8) 정답: ①

9. 주어진 단어의 자음 두 개를 <보기>의 조건에 따라 순서대로 나타낼 때, 모두 옳은 것은?

<보기>

하나의 음운이 가진 조음 위치의 특성을 +라고 하고, 가지고 있지 않은 특성을 -로 규정한다. 예컨대 ‘ㅌ’은 [+치조음, -양순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음]으로 나타낼 수 있다.

① 가로 : [+경구개음], [-후음]

② 미비 : [-경구개음], [+후음]

③ 부고 : [+양순음], [-치조음]

④ 효과 : [-후음], [-연구개음]

(문제9) 정답 및 해설 (2017서울시 사회복지직 B책형 문제9)

① 가로 : [+경구개음](X), [-후음](O) → [-**경구개음**]

◆ ‘가’의 ‘ㄱ’은 ‘연구개음’으로 [-치조음, +연구개음, -**경구개음**, -양순음, -후음]

● ‘로’의 ‘ㄹ’은 ‘치조음’으로 [+치조음, -양순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음**]

◆ 연구개음: 혀의 뒷부분과 연구개 사이에서 나는 소리. < ‘ㅇ’, ‘ㄱ’, ‘ㅋ’, ‘ㄲ’ >

● 후음(목구멍소리): 성대를 막거나 마찰시켜서 내는 소리 < ‘**ㅎ**’ >

② 미비 : [-경구개음](O), [+후음](X) → [-**후음**]

◆ ‘미’의 ‘ㅁ’은 ‘양순음’으로 [+양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음]

● ‘비’의 ‘ㅂ’은 ‘양순음’으로 [+양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음**]

◆ 양순음: 두 입술 사이에서 나는 소리. 국어의 < ‘**ㅂ**’, ‘ㅃ’, ‘ㅍ’, ‘ㅍ’ >

③ 부고 : [+양순음](O), [-치조음] (O)

◆ ‘부’의 ‘ㅂ’은 ‘양순음’으로 [-치조음, +**양순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음]

● ‘고’의 ‘ㄱ’은 ‘연구개음’으로 [-**치조음**, -양순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음]

◆ 양순음: 두 입술 사이에서 나는 소리. 국어의 < ‘**ㅂ**’, ‘ㅃ’, ‘ㅍ’, ‘ㅍ’ >

◆ 연구개음: 혀의 뒷부분과 연구개 사이에서 나는 소리. < ‘ㅇ’, ‘**ㄱ**’, ‘ㅋ’, ‘ㄲ’ >

● 치조음(치경음): 혀끝과 윗잇몸이 닿아서 나는 소리. < 한글의 ‘ㄷ’, ‘ㅌ’, ‘ㅌ’, ‘ㄴ’, ‘ㄴ’ >

④ 효과 : [-후음](X), [-연구개음](X) → [+후음], [+연구개음]

- ◆ '효'의 'ㅎ'은 '후음'으로 [-치조음, -양순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음]
- '과'의 'ㄱ'은 '연구개음'으로 [-치조음, -양순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음]
- ◆ 후음(목구멍소리): 성대를 막거나 마찰시켜서 내는 소리 < 'ㅎ' >
- 연구개음: 혀의 뒷부분과 연구개 사이에서 나는 소리. < 'ㅇ', 'ㄱ', 'ㅋ', 'ㆁ' >

(문제9) 정답: ③

10. 밑줄 친 ㉠을 고려할 때 표준 발음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준어 규정」제2부 표준 발음법

제12항 받침 ㅎ 의 발음은 다음과 같다.

4. ㉠ 'ㅎ(ㄴㅎ, ㄹㅎ)'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 을 발음하지 않는다.

낱은[나은], 쌓이다[싸이다], 많아[마:나], 싫어도[시려도]……

- ① 바지가 다 닳아서[다라서] 못 입게 되었다.
- ② 저녁 반찬으로 찌개를 끓이고[끄리고] 있다.
- ③ 가지고 온 책은 책상 위에 놓아[노아] 두렴.
- ④ 기회를 놓치지 않은[안는] 사람이 결국에는 성공하더라.

(문제10) 정답 및 해설 (2017서울시 사회복지직 B책형 문제10)

① 바지가 다 닳아서[다라서] 못 입게 되었다. (O)

- ◆ ㄹㅎ + 아 → 'ㅎ'은 발음하지 않고 'ㄹ'은 연음되어 '아'로 들어간다.
- ◆ 'ㅎ(ㄴㅎ, ㄹㅎ)'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결합되므로 'ㅎ'은 발음하지 않고 'ㄹ'은 연음되어 '아'와 결합한다. < 닳아서[다라서] >

② 저녁 반찬으로 찌개를 끓이고[끄리고] 있다. (O)

- ◆ ㅎ + 이 → 'ㅎ'은 발음하지 않고 'ㄹ'은 연음되어 '이'로 들어간다.
- ◆ 'ㅎ(ㄴㅎ, ㄹㅎ)'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결합되므로 'ㅎ'은 발음하지 않고 'ㄹ'은 연음되어 '이'와 결합한다.< 끓이고[끄리고] >

③ 가지고 온 책은 책상 위에 놓아[노아] 두렴. (O)

- ◆ ㅎ + 아 → 'ㅎ'은 발음하지 않는다.
- ◆ 'ㅎ(ㄴㅎ, ㄹㅎ)'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결합되므로 'ㅎ'은 발음하지 않는다. < 놓아[노아] >

④ 기회를 놓치지 않은[안는] 사람이 결국에는 성공하더라. (X) → [아는]

- ◆ ㄴㅎ + 은 → 'ㅎ'은 발음하지 않고 'ㄴ'은 연음되어 '은'으로 들어간다.
- ◆ 'ㅎ(ㄴㅎ, ㄹㅎ)'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결합되므로 'ㅎ'은 발음하지 않고 'ㅎ'은 연음되어 '은'과 결합한다. < 않은[아는] >

(문제10) 정답: ④

11.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 ① 그 친구의 키는 장대 만큼 크다.
- ② 그 친구의 집에는 사과, 감, 귤 등이 많이 있다.
- ③ 그 친구와 연락한 지 세 시간만에 만났다.
- ④ 그 친구의 대답이 맞는 지 모르겠다.

(문제11) 정답 및 해설 (2017서울시 사회복지직 B책형 문제11)

① 그 친구의 키는 장대 만큼 크다. (X) → 키는 장대만큼

◆ 체언과 ‘만큼’이 결합할 경우 ‘만큼’은 조사가 되므로 앞말과 붙여 쓴다.

< 체언: 문장에서 주어 따위의 기능을 하는 명사, 대명사, 수사를 통틀어 이르는 말 >

◆ 집을 대궐만큼 크게 짓다.

◆ 명주는 무명만큼 질기지 못하다.

◆ 나도 당신만큼 할 수 있다.

● 하지만 ‘만큼’이 용언과 결합할 경우 ‘의존명사’가 되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 용언: 문장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동사, 형용사를 통틀어 이르는 말 >

● 노력한V만큼 대가를 얻다.

● 주는V만큼 받아 오다. / 방 안은 숨소리가 들릴V만큼 조용했다.

● 선창 거리가 복적거리는 만큼, 개항지 목포를 찾아드는 이주민들도 불어났다.

② 그 친구의 집에는 사과, 감, 귤V들이 많이 있다. (O)

◆ ‘들’이 명사 뒤에 쓰여 두 개 이상의 사물을 나열할 때, 그 열거한 사물 모두를 가리키거나, 그 밖에 같은 종류의 사물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로 쓰일 경우 의존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 책상 위에 놓인 공책, 신문, 지갑V들을 가방에 넣다.

◆ 과일에는 사과, 배, 감V들이 있다.

● 하지만 체언, 부사어, 연결 어미 ‘-아, -게, -지, -고’, 합성 동사의 선행 요소, 문장의 끝 따위의 뒤에 붙어 그 문장의 주어가 복수임을 나타낼 때에는 조사이므로 앞말과 붙여 쓴다.

● 이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들 있어라.

● 다들 떠나갔구나.

● 다 떠날 갔구나.

● 안녕들 하세요?

12. 문맥을 고려할 때 괄호 안의 한자가 옳은 것은?

- ① 그는 변명(辨明)을 늘어놓기에 급급했다.
- ② 사람의 마음가짐은 대상 인식(人識)에 영향을 끼친다.
- ③ 제4차 산업혁명에 능동적으로 대처(大處)해야 한다.
- ④ 올림픽은 국위를 선양(禪讓)하기 위한 겨루기의 장이다.

(문제12) 정답 및 해설 (2017서울시 사회복지직 B책형 문제12)

① 그는 변명(辨明)을 늘어놓기에 급급했다. (○)

◆ 변명(辨明): 辨(분별할 변, 갓출 판, 두루 편, 깎아내릴 펴) 明(밝을 명)

◆ 의미: 어떤 잘못이나 실수에 대하여 구실을 대며 그 까닭을 말함.

◆ 발음: [변:명](긴소리)

★ 어떤 잘못이나 실수에 대하여 구실을 대며 그 까닭을 말하는 ‘변명(辨明)’에서 ‘변’자에는 ‘칼 도(刀)’가 얼핏 보인다. 그리고 ‘명’은 ‘밝을 명(明)’ 그 자체이다.

☺**영보이 암기tip** 평소예 **칼(刀: 갈 도)**을 가지고 다니는 살인범이 조명이 **밝은(明: 밝을 명)** 취조실에서 변명(辨明)을 늘어놓는다.

< **헛갈리는 한자어**: ‘남의 이익을 위하여 변명하고 감싸서 도와줌’을 의미하는 변호(辯護)는 ‘말 잘할 변(辯)’을 쓴다. 또한 ‘말 잘할 변(辯)’에는 ‘말씀 언(言)’이 들어간다는 점도 기억하자. >

② 사람의 마음가짐은 대상 인식(人識)에 영향을 끼친다. (X) → 인식(認識)

◆ 인식(認識): 認(알 인) 識(알 식)

◆ 의미: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앎.

★ ‘인식(認識)’은 ‘사람 인(人)’이 아니라 ‘알 인(認)’을 쓴다. 또한 ‘알 인(認)’은 ‘말씀 언(言)’이 들어간다. 하나 더 기억할 점은 ‘인식(認識)’은 ‘말씀 언(言)’이 두 번 들어간다는 것이다.

☺**영보이 암기tip** 청소년에게 올바른 **인식(認識)**을 심어 줄 수 있는 진정한 **말씀(言: 말 말씀 언)**이 필요하다.

③ 제4차 산업혁명에 능동적으로 대처(大處)해야 한다. (X) → 대처(對處)

◆ 대처(對處): 對(대답할 대) 處(곳 처)

◆ 의미: 어떤 정세나 사건에 대하여 알맞은 조치를 취함.

◆ 발음: [대:처](긴소리)

★ ‘어떤 정세나 사건에 대하여 알맞은 조치를 취함’을 의미하는 ‘대처(對處)’는 대답할 대(對)를 쓴다. 또한 ‘대답할 대(對)’는 ‘마디 촌(寸)’이 들어간다.

☺**영보이 암기tip** 매일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삼촌(三寸)의 술주정에 어떻게 대처(對處)해야 할지 고민이다. < 삼촌(三寸) - 대처(對處) >

④ 올림픽은 국위를 선양(禪讓)하기 위한 겨루기의 장이다. (X) → 선양(宣揚)

◆ 선양(宣揚): 宣(베풀 선) 揚(오를 양)

◆ 의미: 명성이나 권위 따위를 널리 떨치게 함.

★ ‘명성이나 권위 따위를 널리 떨치게 함.’을 의미하는 ‘선양(宣揚)’의 ‘선’자에는 ‘해 일(日)’이 들어가고 ‘양’자에는 ‘손 수(手)’가 들어간다.

☺영보이 암기tip) 국위를 선양(宣揚)하는 태극 전사들이 **일요일(日: 해 일)**에도 **손(手: 손 수)**에 땀을 흘리며 훈련하고 있다.

(문제12)정답: ①

13. 다음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ㆍ’가 현대 국어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물[水]’이 현대국어에 와서 ‘물’로 형태가 바뀌었으며, ‘어리다’가 ‘어리석다[愚]’로 쓰이다가 현대 국어에 와서 ‘나이가 어리다[幼]’의 뜻으로 바뀌어 쓰이는 것 등과 같은 예에서 알 수 있는 언어의 특성을 언어의 ()이라고 한다.

① 사회성

② 역사성

③ 자의성

④ 분절성

(문제13) 정답 및 해설 (2017서울시 사회복지직 B책형 문제13)

◆ ‘ㆍ’가 현대 국어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물[水]’이 현대국어에 와서 ‘물’로 **형태가 바뀌었으며**, ‘어리다’가 ‘어리석다[愚]’로 쓰이다가 현대 국어에 와서 ‘나이가 어리다[幼]’의 **뜻으로 바뀌어** 쓰이는 것 등과 같은 예에서 알 수 있는 언어의 특성을 언어의 ()이라고 한다.

◆ 시간에 흐름에 따라 형태가 바뀌거나 의미가 바뀌는 것은 언어의 특성 중 ‘역사성(歷史性)’이다.

① 사회성(社會性): 언어에서, 소리와 의미의 관계가 사회적으로 약속된 것이어서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특성.

② 역사성(歷史性) (O): 언어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단어의 소리와 의미가 변하거나 문법 요소가 변화하는 특성.

③ 자의성(恣意性): 언어에서, 소리와 의미의 관계가 필연적이지 않은 특성

④ 분절성(分節性): 언어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세계를 불연속적으로 끊어서 표현하는 특성.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무지개의 색깔을 일곱 개의 색깔로 끊어서 표현하는 것 따위이다.

(문제13) 정답: ②

14. 밑줄 친 부분에 사용한 표현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넓은 별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회돌아 나가고,
 얼룩백이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 그 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리야.

- 정지용, 「향수」중에서 -

- ① 어느 집 담장을 넘어 달겨드는 / 이것은, / 치명적인 냄새
- ② 명석 위에 나란히 잠든 반들거리는 몸 위로 살짝살짝 늦가을 햇볕 발 디디는 소리
- ③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 젊은 아버지의 서느런 옷자락에 / 열(熱)로 상기한 불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 ④ 피아노에 얹은 / 여자의 두 손에서는 / 끊임없이 / 열 마리씩 / 스무 마리씩 / 신선한 물고기가 / 튀는 빛의 꼬리를 물고 / 쏟아진다.

(문제14) 정답 및 해설 (2017서울시 사회복지직 B책형 문제14)

◆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 공감각적 심상(청각이 시각으로 전이)

◆ 공감각(共感覺): 어떤 하나의 감각이 다른 영역의 감각을 일으키는 일. 또는 그렇게 일으켜진 감각. 소리를 들으면 빛깔이 느껴지는 것 따위이다. 다시 말해서 공감각적 표현은 하나의 감각이 다른 영역의 감각으로 전이(轉移)되는 것을 말한다.

① 어느 집 담장을 넘어 달겨드는 / 이것은, / 치명적인 냄새 (O) - 공감각적 심상(후각이 시각화) < 김선우의 ‘감자 먹는 사람들’ >

② 명석 위에 나란히 잠든 반들거리는 몸 위로 살짝살짝 늦가을 햇볕 발 디디는 소리 (O)
 - 공감각적 심상(시각이 청각으로 전이) < 김선우의 ‘단단한 고요’ >

③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 젊은 아버지의 서느런 옷자락에 / 열(熱)로 상기한 불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X) - 감각의 전이가 아니라 촉각적 심상만이 나타나 있음.
 < 김종길의 ‘성탄제’ >

④ 피아노에 얹은 / 여자의 두 손에서는 / 끊임없이 / 열 마리씩 / 스무 마리씩 / 신선한 물고기가 / 튀는 빛의 꼬리를 물고 / 쏟아진다. (O) - 청각의 시각화(청각이 시각으로 전이) / 피아노의 선율이 피아노를 치는 여자의 손의 모습으로 전이) < 전봉건의 ‘피아노’ >

(문제14) 정답: ③

15. ㉠~㉣ 중 밑줄 친 문장에서 강조하는 내용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정보 통신 기술은 컴퓨터를 수단으로 하여 인간의 두뇌와 신경 을 비약적으로 ㉠확장하였다.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은 전 세계적으로 정치, 경제, 산업, 교육, 의료, 생활양식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인간관계와 사고방식, 가치관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불평등과 불균형을 불러올 위험성도 있다.

사회학자 드 세토(De Certeau)는 “기술은 문을 열 뿐이고, 그 문에 들어갈지 말지는 인간이 결정한다.”라는 말을 했다. 정보 통신 기술은 우리의 모든 생활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보 통신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이다. 정보 통신 기술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지만, 그 기술의 가치를 이해하고 ㉣선택하는 주체는 바로 우리이기 때문이다.

- ① ㉠ ② ㉡ ③ ㉢ ④ ㉣

(문제15) 정답 및 해설 (2017서울시 사회복지직 B책형 문제15)

◆ 정보 통신 기술은 컴퓨터를 수단으로 하여 인간의 두뇌와 신경 을 비약적으로 ㉠확장하였다.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은 전 세계적으로 정치, 경제, 산업, 교육, 의료, 생활양식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인간관계와 사고방식, 가치관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불평등과 불균형을 불러올 위험성도 있다.

사회학자 드 세토(De Certeau)는 “기술은 문을 열 뿐이고, 그 문에 들어갈지 말지는 인간이 결정한다.”라는 말을 했다. 정보 통신 기술은 우리의 모든 생활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보 통신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이다. 정보 통신 기술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지만, 그 기술의 가치를 이해하고 ㉣선택하는 주체는 바로 우리이기 때문이다.

◆ ‘㉠확장, ㉡변화, ㉢영향’은 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나, ‘㉣선택’은 인간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위 글에서 “기술은 문을 열 뿐이고, 그 문에 들어갈지 말지는 인간이 결정한다.” 와 ‘그 기술의 가치를 이해하고 ㉣선택하는 주체는 바로 우리이기 때문이다.’를 보면 서로 상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15) 정답: ④ ㉣

16. 다음 글에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억양은 소리의 높낮이의 이어짐으로 이루어지는 일정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동일한 문장이라도 억양을 상승 조로 하느냐 하강 조로 하느냐에 따라 의문문도 되고 평서문도 된다. 이 경우 억양은 문장의 유형을 결정하는 문법적 기능을 담당한다. 또 억양은 이러한 문법적 기능 이외에 화자의 태도와 의미를 드러내기도 한다. 하강 억양은 완결의 뜻을, 상승 억양은 비판의 뜻을 나타낸다. 억양에는 이처럼 발화 태도와 의미가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이해해야 정확한 뜻을 전달할 수 있다.

- ① 억양을 잘 이해할수록 정확한 뜻을 전달하기가 어렵다.
- ② 억양은 문장의 어순을 결정하는 문법적 기능을 담당한다.
- ③ 상승 억양에는 화자의 비판적 태도와 의미가 담길 수 있다.
- ④ 같은 문장이라도 소리의 장단에 따라 문장 유형이 달라질 수 있다.

(문제16) 정답 및 해설 (2017서울시 사회복지직 B책형 문제16)

- ① 억양을 잘 이해할수록 정확한 뜻을 전달하기가 어렵다. (X)
◆ '억양에는 이처럼 발화 태도와 의미가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이해해야 정확한 뜻을 전달할 수 있다.'로 보아 억양을 잘 이해할수록 정확한 뜻을 전달할 수 있다.
- ② 억양은 문장의 어순을 결정하는 문법적 기능을 담당한다. (X)
◆ 억양은 어순과 상통하지 않다. 또한 위 글에서 어순과 관계된 말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③ 상승 억양에는 **화자의 비판적 태도**와 의미가 담길 수 있다. (O)
● '하강 억양은 완결의 뜻을, **상승 억양은 비판의 뜻을 나타낸다.**'로 보아 상승 억양에는 화자의 비판적 태도와 의미가 담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④ 같은 문장이라도 소리의 장단에 따라 문장 유형이 달라질 수 있다. (X)
◆ 소리의 장단과 억양은 상통하지 않다. 또한 위 글에서 소리의 장단과 관계된 말을 나타나지 않는다.

(문제16) 정답: ③

17. 다음 시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까마귀 싸우는 골에 백로야 가지 마라
성년 까마귀 흰빛을 새울세라
청강(淸江)에 일껏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 ① 작자는 정몽주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다.
- ② 색의 대비를 통해 까마귀를 옹호하고 있다.
- ③ '새울세라'는 '고칠까봐 두렵구나.'로 해석할 수 있다.
- ④ 수사법상 비유법을 사용하고 있다.

(문제17) 정답 및 해설 (2017서울시 사회복지직 B책형 문제17)

◆ 이 시조는 선우당 이씨의 '오로가(烏鷺歌)'이다.

◆ 정몽주의 어머니가 지은 작품이라 알려져 있으나 연산군 대의 김정구, 작자 미상 등 의견의 대립이 있다. < 다수설은 정몽주의 어머니이다. >

까마귀 싸우는 골에 백로야 가지 마라 - 까마귀 싸우는 골짜기에 백로야 가지 마라
성낸 까마귀 흰빛을 새울세라 - 성낸 까마귀가 백로 너의 흰 빛을 샘낼까 봐 두렵구나.

청강(淸江)에 일껏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 푸른 물에 깨끗이 씻은 몸이 더러워
질까 걱정이로다.

◆ 이 시조와 관계된 고사성어: 근묵자흑(近墨者黑)

◆ 근묵자흑(近墨者黑): 近(가까울 근) 墨(먹 묵) 者(놈 자) 黑(검을 흑)

1)의미: 먹을 가까이하는 사람은 검어진다는 뜻으로, 나쁜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나쁜 버릇에 물들기 쉬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유의어

1)近朱者赤(근주자적): 近(가까울 근) 朱(붉을 주) 者(놈 자) 赤(붉을 적)

a)의미: 붉은빛에 가까이 하면 붉게 된다는 뜻으로, 주위(周圍)의 환경(環境)이나 여건이 중요(重要)하다는 말.

●반의어

1)마중지붕(麻中之蓬): 麻(삼 마) 中(가운데 중) 之(갈 지) 蓬(쑥 봉)

a)의미: 삼밭 속의 쑥이라는 뜻으로, 곧은 삼밭 속에서 자란 쑥은 곧게 자라게 되는 것처럼 선한 사람과 사귀면 그 감화를 받아 자연히 선해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① 작자는 정몽주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다. (X) → 정몽주의 어머니

② 색의 대비를 통해 까마귀를 옹호하고 있다. (X) → 까마귀 근처에 가지 말라고 함.

③ '새울세라'는 '고칠까봐 두렵구나.'로 해석할 수 있다. (X) → 샘낼까 봐 두렵구나.

④ 수사법상 비유법을 사용하고 있다. (O) - 비유법 중 대조법과 풍유법을 사용하고 있다.

◆ 비유법: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비유하여 표현하는 수사법. 직유법, 은유법, 의인법, 의성법, 의태법, 풍유법, 제유법, 환유법, 중의법 따위가 있다.

◆ 대조법: 까마귀의 검은 이미지와 백로의 하얀 이미지가 대조를 이룬다.

◆ 풍유법: 본뜻은 숨기고 비유하는 말만으로 숨겨진 뜻을 암시하는 수사법. 비유법의 하나로, 속담이나 격언 따위가 여기에 속한다.

(문제) 정답: ④

18. 다음 작품과 가장 유사한 정서를 지니는 것은?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눈
벗리고 가시리잇고 나눈
위 증즐가 대평성디(太平盛代)
날러는 엇디 살라 헝고 벗리고 가시리잇고 나눈
위 증즐가 대평성디(太平盛代)
잡스와 두어리마누는
선흐면 아니 올세라
위 증즐가 대평성디(太平盛代)
셜은 님 보내옵노니 나눈
가시는 듯 도셔 오쇼셔 나눈
위 증즐가 대평성디(太平盛代)

- ① 한용운, 「님의 침묵」
- ② 김상용, 「남으로 창을 내겠소」
- ③ 서정주, 「국화 옆에서」
- ④ 김소월, 「진달래꽃」

(문제18) 정답 및 해설 (2017서울시 사회복지직 B책형 문제18)

◆ 이 작품은 고려속요 ‘가시리’이다.

◆ 가시리: 고려 시대의 속요. 이별의 정한(情恨)을 노래한 것으로, 전체 네 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악장가사>에 실려 있다. 작가와 연대는 알 수 없다. ≡ 귀호곡(歸乎曲).

① 한용운, 「님의 침묵」(1926): 한용운의 시집. 대표시 <님의 침묵>을 비롯하여 <최초의 임>, <잠 없는 꿈>, <당신을 보았습니다> 등 90편의 시가 실려 있다. 대부분 불교적 비유와 고도의 상징적 수법으로 쓴 서정시로 일제에 대한 저항 의식과 애족(愛族)의 정신이 짙게 나타나 있다.

② 김상용, 「남으로 창을 내겠소」(1934): 전원적이고 자연친화적인 시로 소박하고 겸손하게 자연과 함께 살고자 하는 정서를 담고 있다. < 1934년 문예 잡지 ‘문학’에 발표하였다. / ‘문학’은 박용철이 1933년에 발행한 문예 잡지. 순수문학을 지향함. >

③ 서정주, 「국화 옆에서」(1947): 서정주가 지은 시로 1947년 ‘경향신문’에 발표되었다. 이 시는 한국 중년 여성의 안정성(安定性)과 원숙미(圓熟美)를 담고 있으며 또한 차가운 서리를 맞으면서 노랗게 피어나는 국화의 강인한 생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④ 김소월, 「진달래꽃」(1925)(O):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이별의 정한(定限)을 노래하였다.

★ 이별의 정한(情恨)을 담은 작품들 ★

- ◆ **공무도하가(公無渡河歌)**: 고조선 때의 노래. 백수(白首) 광부(狂夫)가 강을 건너다가 빠져 죽자 그의 아내가 이를 한탄하면서 불렀는데, 이를 곽리자고(霍里子高)가 듣고 그의 아내 여옥(麗玉)에게 들려주자, 여옥이 공후(箜篌)를 연주하면서 곡조를 만들어 불렀다는 기록이 중국 진(晉)나라 최표(崔豹)의 <고금주>에 전한다. 작자를 여옥으로 보는 설도 있다. ≡공후인.
- ◆ **제망매가(祭亡妹歌)**: 신라 경덕왕 때에 월명사가 지은 10구체의 향가. 죽은 누이를 위하여 재(齋)를 올릴 때에 이 노래를 부르자 갑자기 광풍이 일어서 지전(紙錢)이 서쪽을 향하여 날아가 버렸다고 한다. <삼국유사>에 실려 있다.
- ◆ **가시리**: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눈 / 브리고 가시리잇고 나눈 ~’
- ◆ **서경별곡((西京別曲)**: 고려 시대의 속요. 서경에서 임과 이별하는 여인의 애틋한 심정을 노래한 것으로, 남녀상열지사(男女上列地事)로 지목되어 산삭이 되기도 하였다. 그 원문은 <악장가사>에 실려 있다. 작가와 연대는 알 수 없다.
- ◆ **황진이**의 시조: ‘청산리 벽계수야 수이 감을 자랑 마라. ~’
- ◆ **진달래꽃**: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

(문제18) 정답: ④

19. 문맥을 고려하여 ㉠ ~ ㉣을 가장 적절하게 감상한 것은?

길동이 ㉠체읍주왁(涕泣奏曰), "이 불초한 동생 길동이 본래 부형(父兄)의 훈계를 듣지 말고자 함이 아니오라, ㉡팔자 기박하여 천생(賤生)됨을 평생 한일 뿐더러 가(家) 중에 시기하는 사람을 피하여 정처 없이 다니다가 천만 몽매(蒙昧)로 몸이 ㉢적당(賊黨)에 빠져 잠시 생애를 붙였더니, 죄명이 이에 미치었사오니 명일에 소제(小弟) 잡은 연유를 장계하옵고, 소제를 결박하여 나라에 바치옵소서." 하며, 담화로 날을 새우고 평명(平明)에 감사 길동을 철쇄로 결박하여 보낼새 ㉣참연(慘然)히 낮빛을 고치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더라.

- ① ㉠ : 길동이 상대를 속이기 위해 거짓 웃음을 짓고 있군.
- ② ㉡ : 길동이 부형의 훈계를 듣지 않은 것을 한탄하고 있군.
- ③ ㉢ : 길동의 죄명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라고 하겠군.
- ④ ㉣ : 길동이 감사를 결박하고서 슬픈 표정을 짓고 있군.

(문제19) 정답 및 해설 (2017서울시 사회복지직 B책형 문제19)

◆ 이 작품은 허균의 '홍길동전'이다.

◆ **홍길동전**: 조선 광해군 때에 허균이 지은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 능력이 뛰어나지만 재상이 서얼로 태어난 탓에 천대를 받던 홍길동이, 집을 나와 활빈당이라는 집단을 결성하여 관아와 해인사 따위를 습격하다가 울도국을 건설한다는 내용으로, 당시 사회 제도의 결함, 특히 적서 차별(嫡庶差別)을 타파하고 부패한 정치를 개혁하려는 의도로 지은 사회 소설이다.

① ㉠ : 길동이 상대를 속이기 위해 거짓 웃음을 짓고 있군. (X) → 길동이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면서 말하고 있다.

◆ 체읍(涕泣):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

② ㉡ : 길동이 부형의 훈계를 듣지 않은 것을 한탄하고 있군. (X) → 서얼로 태어난 천생(賤生)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다.

◆ '이 불초한 동생 길동이 본래 부형(父兄)의 훈계를 듣지 말고자 함이 아니오라, ㉡팔자 기박하여 천생(賤生)됨을 평생 한일 뿐더러'로 보아 서얼로 태어난 천생(賤生)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다.

◆ 천생(賤生): 천첩에게서 난 자손. ≡ 천출(賤出) / 천한 출신

★ 동음이의어 - 천생(天生): 하늘로부터 타고남. 또는 그런 바탕. / 타고난 것처럼 아주.

③ ㉢ : 길동의 죄명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라고 하겠군. (O)

◆ '적당(賊黨)에 빠져 잠시 생애를 붙였더니, **죄명이 이에 미치었사오니** 명일에 소제(小弟) 잡은 연유를 장계하옵고, 소제를 결박하여 나라에 바치옵소서.'로 보아 길동의 죄명을 유추할 수 있다.

④ ㉣ : 길동이 감사를 결박하고서 슬픈 표정을 짓고 있군. (X) → 감사가 길동을 철쇄로 결박한 것이다.

◆ '평명(平明)에 감사 길동을 철쇄로 결박하여'로 보아 감사가 길동을 결박한 것이다.

◆ 평명(平明): 해가 뜨는 시각. 또는 해가 돌아 밝아질 때.

(문제19) 정답: ③

20. 다음 글의 중심 내용을 고려할 때, 글쓴이의 의도에 부합하는 반응으로 가장 옳은 것은?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양성이 증대되었다고 생각하기가 쉽다. 체계적 국제 운송 및 통신 시스템의 도입으로 타 문화권에서 생산된 다양한 상품들과 식품들을 한데 모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다채로운 문화의 경험을 원활하게 만드는 바로 그 시스템이 실제로는 그런 다양성을 깨끗이 지워버리는 한편, 세계 전역에 걸쳐 지역마다의 문화적 특성까지도 말살하고 있다. 링곤베리와 파인애플 주스는 코카콜라에, 모직과 면으로 된 옷들은 청바지에, 고원에서 자라던 토종 소들은 저지 젖소에게 그 자리를 내주었다. 다양성이란 것은 한 회사에서 만든 열 가지의 청바지 중에 어느 것을 고를까 하는 문제가 절대 아니다.

- ① 지역 특산의 사과 품종을 굳이 보존할 필요가 없겠군.
- ② 글로벌 경제 시스템은 다양성 보존과는 거리가 있군.
- ③ 될 수 있으면 다국적 기업의 청바지를 사 입어야겠군.
- ④ 국제 운송 시스템은 지역 문화의 다양성을 증진시켰군.

(문제20) 정답 및 해설 (2017서울시 사회복지직 B책형 문제20)

◆ 글쓴이의 의도는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양성이 증대된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다양성을 깨끗이 지워버리고 지역마다의 문화적 특성까지도 말살하고 있다.’고 하여 경제의 글로벌화를 비판하고 있다.

① 지역 특산의 사과 품종을 굳이 보존할 필요가 없겠군. (X)

→ ‘경제의 글로벌화가 ~ 지역마다의 문화적 특성까지도 말살하고 있다.’로 보아 지역 특산의 사과 품종을 보존해야 한다는 생각을 유추할 수 있다.

② 글로벌 경제 시스템은 다양성 보존과는 거리가 있군. (O)

◆ 글로벌 경제시스템을 비판하고 있는 글이므로 이것이 정답이라 할 수 있다.

③ 될 수 있으면 다국적 기업의 청바지를 사 입어야겠군. (X)

→ 글로벌 경제시스템을 비판하는 입장이므로 다국적 기업의 청바지를 사 입어야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④ 국제 운송 시스템은 지역 문화의 다양성을 증진시켰군. (X)

→ ‘경제의 글로벌화가 다채로운 문화의 경험을 원활하게 만드는 바로 그 시스템이 실제로는 그런 다양성을 깨끗이 지워버리는’으로 보아 국제 운송 시스템은 지역 문화의 다양성을 지워버리는 결과를 만든다.

(문제20) 정답: ②